강소연 교수의 고려불화, 마이크로 세계 ⑥ 오백나한도의 나한



▶ 한줄 요약
일본 교토 지은원 소장 〈오백나한도〉는 멀리서 포면 석가삼존이 있는 산수화 같다. 하지만 가까이서 보면 무한의 나한들로 풍경은 해체된다. 나한들은 제각각의 용모와 행동을 하는데, 이 안에는 유머와 해학이 담겼다. 이 같은 유머와 해학은 한국불교 불화만의 특징이다.

무한의 나한, 화폭에 담다

멀리서 보면 한 폭의 산수화다.(그림1) 병풍처럼 두른 산봉우리와 기암괴석 속에 석가삼존이 앉아계신다. 그림 윗부분의 울뚝불뚝한 봉우리들은 아래까지 그러한 산세를 이어가서 전체로 둘러있다. 아! 그런데 봉우리의 능선들이 꿈틀 꿈틀 움직인다. 더 가까이 다가가보니,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멀리서 봉우리와 계곡으로 보였던 것이 다름 아닌 무수한 나한님들의 무리였다.(그림2) 나한들이 인산인해를 이루며, 석가삼존을 빼곡히 에워싸고 있다. 무한 군중으로 그려진 나한들은, 물방울이 모여 파도치듯 그렇게 커다란 흐름을 만들어 내고 있다. 절묘한 구성이다.



그림①

석가삼존 앉은 한 폭의 산수화
화폭 풍경 곳곳엔 나한들 향연
각각 모습엔 유머와 해학 담겨
소탈함 속 비범함 표현들 '눈길'
中 · 日 없는 한국불교만의 특징

그림① 일본 교토 지은원에 소장된 고려시대 불화 〈오백나한도〉의 모습.

그림② 〈오백나한도〉 부분을 촬영한 모습. 풍경 곳곳에 무수한 나한들이 제각각의 모습과 행동으로 앉아 있다. '유머와 해학'의 표현은 한국불교만의 특징이다.



그림②

깨알 같은 나한들로 해체되는 풍경

멀리서 보면 산봉우리와 계곡의 거대한 풍경으로 보이지만, 가까이 다가가 보면 풍경은 해체된다. 덩어리로 보였던 것이 분해되어 버린다. 나한들의 향연으로. 개미떼 같은 군중 속의 나한들을 들여다보면, 모두 제 각각이다. 제 각각의 용모에 제 각각의 일에 몰두하고 있다. 개성이 넘친다. 그리고 이들 나한들의 모습을 하나하나 들여다보고 있노라면, 마음이 따뜻해져 온다. 그 이유는 너무나 소탈하고 인간적이기 때문이다. 나한이라고 하면 왠지 근엄하고 단정하고 정갈해야 할 것 같다. 게다가 나한의 경지는 육신통까지 부리기에 왠지 범접하기 힘든 수승한 모습이어야 할 것 같다.

하지만, 이 작품 〈오백나한도〉에서 확인되는 것은 천태만상 인간미 넘치는 스님들의 모습이다. 수행에 몰두하다가 머리털과 턱수염으로 온통 털북숭이가 된 스님과 이것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진 스님, 까마귀에게 모이를 주며 소일하는 노스님들, 아귀들에게 쌀 단지 내어주는 스님과 굶주린 이들을 안쓰러운 눈으로 쳐다보는 스님, 개천에 발 씻고, 또 빨래하는 스님들, 차 마시는 스님들. 이렇게 일상적인 친근한 모습들도 있지만, 신통을 부리는 모습들도 있다. 봉황, 호랑이, 코끼리 등을 아무렇지 않게 타고 다니는 스님들, 용을 손바닥에서 자유자재 부리고 있는 스님, 거대한 구렁이의 똬리를 방석 삼아 앉은 스님, 하늘을 가볍게 비상하는 스님, 외각수 등 신비한 동물과 노니는 스님 등. 이렇게 육신통을 부리지만, 모두 대수롭지 않다는 듯 자연스럽게 이것들이 일상적 장면으로 녹아 있다.

'성냄과 성욕' 완전 소멸, 나한의 경지

'나한(羅漢)'이란, '아라한(阿羅漢)'의 줄임말이다. 우리는 〈금강경〉에 나오는 사과(四果, 깨달음의 4단계, four stages of enlightenment)를 통해, 익히 부처님 당시 제자들이 매진했던 수행의 등급을 알 수 있다. 이는 수다원(예류과, 預流果) · 사다함(일래과, 一來果) · 아나함(불환과, 不還果) · 아라한(아라한과, 阿羅漢果)으로 나뉜다. 첫 단계, '예류'는 '깨달음이라는 흐름에 들어갔다'라는 뜻이다. 번뇌보다 알아차림이 더 많고, 불선업보다 선업이 더 많은 상태이다. '일래'는 이제 '한 번만 더 갔다 오면 된다'는 뜻이다. 어디를 갔다 오느냐하면, 이 세상(욕계)에 한 번만 더 갔다 오면 된다는 것이다. 윤회가 한 번 밖에 안 남았고, 이제 법계에 영원히 머물 수 있는 시점이 코앞이다. 불교의 관점은 그 기준이 언제나 법계이다. 그러니 이 세상(차안)이 아니라 모두 저 세상(피안)을 중심으로 기술된다는 점을 상기하면, 경전이나 법문에 대한 이해가 빠르다.

'불환'은 '더 이상 돌아갈 일 없다'는 뜻이다. 더 이상 욕계로 윤회하지 않는 경지이다. 마지막으로 '아라한'은 '열반에 이른 고귀한 성자'라는 뜻으로 응공(應供) · 응진(應眞)으로 번역된다. 또 더 이상 배울 것이 없으므로 무학(無學)으로 번역되기도 한다.

이렇듯, '아라한' 또는 '아라한과'는 붓다의 제자들이 도달해야하는 이상형이자, 제자들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경지를 일컫는다. 이때 최고의 경지란 탐 · 진 · 치를 완전히 소멸한 상태를 말한다. 더 쉽게 표현하자면, '성냄과 성욕'이 완전히 없는 경지를 아라한이라고 한다.

그런데 여기에 소승과 대승의 갈림길이 있다. 소승에서는 아라한을 목표로 하고 대승에서는 보살을 목표로 한다고 말한다. 아라한에 머물면 안 된다는 대승의 지침을 주지하듯, 〈법화경〉에 언급되어 있다. 팔정도를 완성하면 아라한은 되지만 부처는 못된다. 부처 · 보살이 되려면 십바라밀을 완성해야 된다. 바라밀 중의 바라밀은 보시바라밀이다. 석가모니께서도 전생의 무수한 보시바라밀을 통해 부처가 되었다는 것은 전생담을 통해 전해지는 사실이다. 〈금강경〉이나 〈법화경〉이나 아라한과에 도달했다고 거기에 상(相) 내고 머물지 말고, 부처 · 보살을 목표로 하라는 붓다의 말씀은 아직 흐름(예류)에도 들지 못한, 느림보 수행자(필자)에게는 요원하게만 느껴진다.

'유머와 해학', 한국 불화의 특징

나한들의 얼굴과 자태는 모두 제 각각 개성이 넘친다. 토굴 속에서 고독한 명상에 빠져있는 근엄한 모습, 개울가에 쪼그리고 팔 걷고 승복 빠는 모습, 공양 발우 설거지하는 바쁜 모습, 토론에 열중하는 진지한 모습, 시원한 물에 발 담그고 좋아라하는 모습. 유머가 넘친다. 이렇게 '유머와 해학'이라는 요소는 한국의 불화에만 나타나는 특징이다. 〈관세음보살32응신도〉, 〈지옥도〉와 〈감로도〉 등 우리 전통 불화에서는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공통되는 성향이다. 하지만, 중국이나 일본 등 여타 나라의 불화에서는 결코 찾아 볼 수 없는 특징이겠다. 모름지기 근엄해야 마땅한 불교미술에서,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요소이겠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것은 감상하다 보면, 빙그레 그만 웃게 된다.

〈지옥도〉의 경우, 중국과 일본의 것은 마냥 처절하게 무섭다. 무시무시한 불바다와 극사실적인 처벌 장면, 그리고 구원은 일체 없다. 하지만, 우리나라 것은 지옥의 고문 장면에 유머와 해학이 있어, 감상자로 하여금 웃음을 터뜨리게 만든다. 그리고 창과 칼끝에 '연꽃'을 그려, 지옥의 징벌도 결국 깨달음을 위한 '방편'이라는 것을 알려, 안심토록 해준다.

대승경전 상의 나한의 정의를 보면, '나한이란 육신통(6가지 신통력, 六神通)을 부려 색탐과 같은 욕망을 버리고 팔해탈법(8가지 해탈법 八解脫法)을 터득한 성자'라고 한다. 신통이란, '헤아릴 수 없는 것을 헤아림'을 '신(神)'이라고 하고 '걸림이 없는 것'을 '통(通)'이라고 한다. 신통력에는 여섯 가지가 있는데, ①신족통(神足通 어디든 갈 수 있는 능력) ②천안통(天眼通 세상의 만물을 거리에 상관없이 마음대로 볼 수 있는 능력) ③천이통(天耳通 이 세상의 소리라면 무엇이든 들을 수 있는 능력) ④타심통(他心通 타인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능력) ⑤숙명통(宿命通 자신과 다른 사람의 전생 현생 후생을 모두 알 수 있는 능력) ⑥누진통(漏盡通 번뇌 망상을 모두 없애고 육도 윤회하지 않도록 깨닫는 능력)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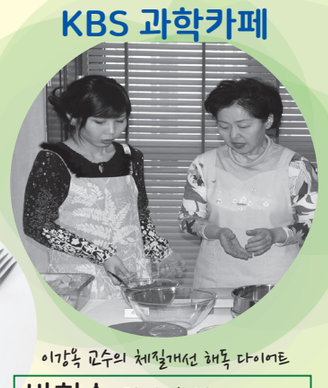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1통에서 제5통까지는 외도, 신선, 천인, 귀신들도 할 수 있는 것이나, 제6통 누진통은 '아라한' 또는 '불 · 보살'만 가능하다. 팔해탈법이란, 존재의 근원으로 작용하는 성욕을 소멸하고 모든 속박을 끊고 열반의 경지에 머무르는 것을 말한다. ①먼저 어떤 대상을 오로지 생각하는 것에 의해 욕정(欲情)을 제거하고, ②나아가 마음을 하나에 집중하여 정신을 통일하고, ③다시 외경(外境)으로부터 마음을 분리해, ④몸과 마음이 청정한 경지에 이르게 하고, 이 단계에서 ⑤주로 무한한 공간을 염하여 외계의 차별상을 멸하고, ⑥그 마음의 작용과 몸이 무한의 경계에 도달해, ⑦그 공간이나 마음의 경계를 초월한 근원에 이르고, ⑧그 근원이 항상 현실 위에 나타나게 되는 경지에 이르는 것이다.

이렇듯 모든 속박에서 자유자재한 나한들. 그 모습은 마냥 천진난만하고 자연스럽다. 경지에 이른 모습은 오히려 특별난 것이 아니었다. 소탈함 속에 비범함이, 비범함 속에 소탈함이 녹아있다.

〈중앙승가대학 교수〉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KBS 과학카페



이강욱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박현숙 원장 출연(2010.2.6)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 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 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초록원웰빙 02)523-0708 박현숙원장 010-7384-1708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웰빙 을 치세요.

靈영通통 비구·비구니 스님을 모십니다

▶ 모집대상 : ① 특별시·광역시 각 도별 종무원장
② 미륵보살(돌할머니 소원 비는 돌) 역할 각 1명
※ 참고사항 : 모집②번에 속하는 역할은 소정의 보증금이 있습니다.

▶ 모집자격 : ① 미륵부처님을 주불로 모셨거나 모실 분.
② 개인 사찰이나 공찰이지만 장기적으로 운영가능 하신 분.
(미륵보살 〈돌할머니 소원 비는 돌〉)

▶ 종무원장에게 드리는 혜택 : 현대의술로도 안 되는 간질, 정신질환, 여러가지 고질병 가정의 우환, 질고, 병고, 액란 완치법(상담결과에 따라 암치료도 가능)을 연합, 사·암으로도 가능합니다.

▶ 모집지역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강화도, 충청남·북도, 전라남·북도, 경상남·북도, 광주, 대구, 울산, 부산, 제주, 거제도, 울릉도 등
19개소 종무원장님을 초빙합니다.



돌할머니 소원 비는 돌

자세한 내용은 아래로 연락 바랍니다.
문의 : 010-7321-0404

대한불교문수종 종정 지광 총무원장 동진 합장

대인사 경남 거창군 거창읍 노혜2길 162